



‘가스검지관’

가는 유리관 속에 가스검지제를 충전한 것. 관의 한쪽으로부터 관의 내부로 가스가 빨아 들어지면 가스제의 성분이 검지제와 반응하여 색이 변함.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가스중의 유해성분을 검출함. 유해성분의 농도는 변색된 길이로 인지하는 경우와 변색의 정도에 따라 인지하는 경우가 있음. 정량 정도는 높지 않으나 간편하므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함. - 암모니아 검지관, - 시안화 수소검지관.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

배기가스중의 유해물질의 정량이나 공장서 배출되는 물중의 유해물질 정량등에 사용함. 이동상과 고정상을 사용함. 물질 특유의 농도평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크로마토 그래프의 일종으로서 이동상에 기체를 사용하는 것을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라 함. 이 방법은 선택성이 우수하며 많은 성분계의 분석이 됨. 또 검출의 감도와 정량의 정도가 높으며 거의 모든 기체의 분석이 가능한 특징이 있음.

‘가시광선’

물체에 닿아 반사하는 광선이 인간의 눈에 색채로서 느껴지는 파장의 범위를 가진 것을 말한다. 파장범위는 380mm로부터 780mm정도이다.

‘가연성 쓰레기’

일반적으로 유기물로 되어 있는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로 칭하고 있지만, 소각로의 구조나 분별수집 방법에 따라서 가연쓰레기의 범위는 다르다. 예를 들면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는 생쓰레기는 단순구조의 회분식 소각로에서는 불연성 쓰레기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성능 연소 소각로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라고 말한다.

‘가연성 먼지’

생활을 통해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 즉 먼지는 배출 상태에서는 가연성 물질이 약20%이고 불연성 물질이 80%임. 일단 건조한 뒤에는 가연성 물질이 약67%로 증가함.

‘가와사키병’

1967년 일본의 의사 가와사키의 임상 보고로 국제적인 망명으로 통하게 된 질환. 젓먹이 아이가 닷새 정도 고열을 일으킨 후 눈이 충혈되고 입술, 혀, 손발 등에 발진이 나는 증상. 심하면 심장 휴유증으로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대에만 나타나는 공해병으로 보이는 견해가 많다.

‘가이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영국의 과학자 J. E. 러블록은 그의 저서 『가이아』(Gaia, 1979)에서 대기나 바닷물의 성분 분석을 바탕으로 지구의 생명권은 화학적, 물리적 환경을 생명 현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자기 제어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지구 전체가 가이아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견해(가이아 가설)를 펼쳤다. 이 견해는 생태·환경운동의 세계관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가정하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총칭으로서 일반 가정, 호텔, 식당, 사무실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수, 잡배수 등이다. 공장이나 공공건물 등의 배수와 구별되는 용어다.

‘간접탈황’

중유의 유황분을 저하시키는 방법의 하나. 압력의 종류 잔유를 감압 증류하면 유출유와 잔유로 나뉘어짐. 그 유출유(경유분)만을 0.3%정도로 수소화 탈황한 후 다시 감압 잔유(중질유, 아스팔트)를 혼합하여 유황분의 %를 낮춘 중유를 생산하는 방법임. 아스팔트의 유황분은 5.5%정도이고 가능한 한 중유와 혼합하는 아스팔트의 양을 낮추는 것이 좋음. 탈황률은 직접 탈황에 비하여 낮지만 직접 탈황의 결점인 촉매독의 영향을 될 수 있는 한 감소시킨 경유분만을 탈황하는 방법으로 연구된 방법임.

‘간이하수처리’

하수 처리에는 간이 처리, 중급 처리, 고급 처리의 3종류가 있음. 간이 처리로는 하수중의 미립자, 용해성 물질 및 세균의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중급 처리 및 고급 처리의 전처리로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음. 간이 처리시설로서는 침사지, 부사 저지판, 유지 저지판, 스크린 등이 있음.

‘간척지’

강이나 바다 또는 호수 등에 독을 쌓거나 정지, 개량하여 육지나 경지를 만드는 일을 간척이라고 하며 간척된 땅을 간척지라 한다. 간척은 해면 간척과 호소습지간척으로 구분되는데, 해면간척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간척지에 방조제를 설치한 뒤 해면을 구획 정리하여 소금기를 제거하고 각종 용지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호소습지간척은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낮은 지대에 제방을 설치하고 배수, 증발, 매립 등의 방법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록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대규모 간척사업은 고대로 마 시대 초기에 시행된 테베레 강 유역의 습지간척이지만 로마 시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나일 강 유역에서 이미 간척사업이 활발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네덜란드의 조이 드르해, 미국의 동남부, 옛 소련의 습지대간척 등은 세계적인 규모의 간척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척의 주대상이 되는 곳은 서남해안의 갯벌이다.